

북한의 정신질환 관련 용어 사용 분석

김정은 시대 『로동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유전원**·전우택***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동신문』 기사 속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정신병,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 관련 용어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통치 시대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변화 등을 알아보았다. 북한에서는 우울증을 자본주의 사회문제로 규정하였고 그것을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19년부터는 우울증을 의학적인 질병 및 예방의 대상으로 보도된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병', '정신분열'이라는 용어도 적대국이나 그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지만, 2021년 이후로는 그런 비유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이 정신질환을 자본주의의 사회모순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부분적으로나마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현상으로 보고 다루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향후 북한의 정신질환 관련 용어가 정치사회적 환경과 목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주제어: 정신질환, 우울증, 정신병, 정신분열, 정신의학, 전자오락중독, 사회통제

* 본 연구는 2024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임상연구비사업(과제번호 No. 2024-04)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 과학기술서기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 서론

정신의학이 다루는 정신질환은 뇌의 신경병리적 원인을 가지는 생물학적인 질병이지만, 그 해석과 대응 방식은 각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¹⁾ 예를 들어 ‘어떤 증상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보는가?’, ‘그것을 어떤 원인을 가진 현상으로 문화적으로 해석하는가?’, ‘그에 따라 그 치료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가족들과 지역사회는 생각하는가?’,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은 어떠한가?’ 등은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²⁾ 따라서 정신질환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인권, 편견 문제와도 연결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관련 법규에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드러나며, 정신질환을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은 해당 사회의 편견과 인권 보호의 수준을 반영한다.³⁾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불모지’로 평가받지만, 대외적으로 장애인(신체 및 정신장애 포함) 인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에 관해서 1998년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설립과 장애인 실태조사, 2013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서명과 장애인보호법의 수정, 실태조사 등의 노

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3판』(서울: 아이엠이즈컴퍼니, 2017), 883~886쪽.

2) 정신의학은 ‘사회와 문화 속에서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돕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면서 정신의학에서의 사회와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위의 책, 883쪽.

3) 박종익·전미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신경정신의학』, 제55권 4호(2015), 300쪽.

력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권리보장을 높게 평가한다.⁴⁾ 하지만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현실에서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각하다.⁵⁾

북한의 정신질환을 다룬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였는데, 이 중 일부 북한의 정신질환 인식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의사 활동 경험이 있는 탈북민 3명을 심층 면담한 한 연구에서는 북한의 의사들과 주민들이 가진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보고한 바 있다.⁶⁾ 북한에서는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숫자를 부여하여 운영하는데, 그중 정신병동을 “49호 병동”으로 지칭한다고 하였다. 북한에서는 이 ‘49호’라는 단어를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공적 대중매체에서도 정신질환을 남한, 미국 등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의 긍정적 면만을 보도하는 것으로 하는 북한 대중매체에서 의학적 차원에서의 정신질환이나 그 치료를 다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신장애 자체를 유전적 원인 등에

4) 박지연,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 연구: 담론 변화에 대한 검토와 실천적 변화에 대한 기대,” 『담론201』, 제22권 3호(2019), 134쪽; 송현진, “북한 장애인의 삶에 드러난 사회적 인식과 차별,” 『통일과 평화』, 제13집 2호(2021), 324~325쪽; 카타리나 젤위거(Katharina Zellweger), “변화하는 북한 속에 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Shorenstein APARC 연구 보고서, 쇼렌슈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 센터” 고미에 옮김(2011), 33쪽.

5) 송현진, “북한 장애인의 삶에 드러난 사회적 인식과 차별,” 337~364쪽.

6) 김석주·박영수·이혜원·박상민,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 『정신신체의학』, 제20권 1호(2012), 37쪽.

의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말미암은 사회심리적 현상으로 규정하려는 입장이어서, 정신질환자는 그 사람이 사회주의형 인간 개발에서 아직 불완전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편견이 작동되어 왔다.⁷⁾ 이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격리했던 역사적 사례와 유사하다.⁸⁾ 북한에서 반체제인사에 대한 정신병원 수용의 근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정신질환자의 49호 입원을 통한 격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이상적인 사회를 보호하려는 관점 또한 제기되었다.⁹⁾ 이와 함께 경제난 이후 의료체계의 붕괴로 정신질환자 또한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시사되었으며,¹⁰⁾ 특히 199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영유아 영양결핍과 뇌 발달 및 인지기능 저하의 가능성 또한 제기된 바 있다.¹¹⁾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우울증을 하나의 생

7) 김석주·이소희, “정신질환에 대한 준비,” 전우택·김신곤 편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제2판』(서울: 박영사, 2021), 187쪽.

8) Young Su Park, Sang Min Park, Jin Yong Jun and Seog Ju Kim, “Psychiatry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Psychiatry,” *Psychiatry Investigation*, Vol. 11, No. 4(2014), pp. 367~368.

9) *Ibid.*, p. 368.

10) 신호철,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신의학 연구: 북한 의학 학술지 <내과>와 <소아, 산부인과>를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75쪽.

11) 김석주·이소희, “정신질환에 대한 준비,” 전우택·김신곤 편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제2판』, 183~184쪽.

물학적 질병보다는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약하게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였다.¹²⁾ 그에 따라 북한에서는 우울증을 독립된 하나의 정신질환이 아니라, 정신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신체질환의 부수적 현상 정도로만 간주하려 하였다.¹³⁾ 또한 전 세계적 문제로 꼽히는 다양한 중독질환(알코올, 마약 등)은 타락한 ‘자본주의 나라’에서나 만연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는 이 문제가 없어야 하기에 중독질환 관련 연구도 빈약하였다.¹⁴⁾ 이처럼 북한은 정신질환을 객관적이고 생물학적인 질병으로 다루기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용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여, 북한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12) Hae Won Kim, Woo Taek Jeon, "Research Output on Mental Health Problems in North Korea between 2006 and 2017: A Bibliographic Analysis of North Korean Medical Journal Articles," *Asian Journal of Psychiatry*, Vol.53(2020), pp. 5~6.

13) 유전원·전우택, "북한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정신의학 진단분류체계," 『신경정신의학』, 제63권 1호(2024), 22쪽.

14) 위의 글, 19쪽.

2. 연구 방법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들은 주로 탈북민의 증언 또는 설문지 등을 분석한 정신의학 관련 연구 속에서 일부 논의되었다.¹⁵⁾ 그러나 실제로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연구는 그동안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인식을 보여 주는 공간문헌인 『로동신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로동신문』은 당의 공식적 입장을 드러내는 매체이기에, 『로동신문』이 북한에 대한 “사실” 자체를 다 드러낸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매일 발행되는 가운데 적어도 북한 당국이 무엇을 기사로 다루고 싶어 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지는 명확히 보여 줌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북한의 내부 사정과 의식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¹⁶⁾

15) Ji Hoon Ahn, Won Hyoung Kim, Hye Jin Choi, Jin Yong Jeon, In Gyu Song and Jae Nam Bae, “Stigma of Mental Illnesses as Perceived by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Vol.12, No.1(2015), pp.9~15; 김석주·박영수·이혜원·박상민,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 34~36쪽; Young Su Park, Sang Min Park, Jin Yong Jun and Seog Ju Kim, “Psychiatry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Psychiatry,” pp.367~369.

16) 송민경,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산림정책 분석: 1990년부터 2011년까지”(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12쪽; 장하용·박경우,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 국가건설기부터 수령제 성립기까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2005), 386~387쪽.

연구의 분석 기간 범위는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김정은 집권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정상국가화’를 내세우면서, 선대의 이데올로기 중심 국가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새로운 통치 지향을 추진하려 노력하였던 시기로 평가된다.¹⁷⁾ 그에 따라 선대로부터 이어진 유일 체제는 굳게 유지하였지만,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포착되어 온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에 공간문화에 드러난 정신질환을 다루는 내용과 방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를 통하여 북한 사회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북한사회 전체의 변화에 대한 일부분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국내 북한 전문 도서관(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도서관)에서 접근 가능한 『로동신문』의 본문 검색을 시행하였다. 정신질환의 검색어는 ‘좋은 것’ 위주로 보도하는 북한의 언론매체 특성상, 제목보다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았고, 특히 본문에서 각 정신질환 이름을 검색한 후 정량 분석을 하였을 때 그 내용 파악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기간의 『로동신문』에서 정신질환 관련 단어가 활용된 기사 전문을 분석하였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용어인 우울증, 정신병(정신병자, 정신병원, 정신병동 포함), 정신분열(북한식 표기), 정신질환, 정신건강, 불안증, 치매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해당 단어가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된 기사 전문을 분석하였다. 관련 기사 전

17) 김지니, “김정은 시대, 통치공간의 형성과 그 전략들: 수령제 국가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혼종화,” 『현대북한연구』, 제26권 1호(2023), 29~39쪽.

체를 수집한 이후 조사 항목을 설정하여 귀납적 방식으로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사의 제목, 게재 면, 일자, 카테고리, 정신질환 용어의 활용 목적 등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검색어가 사용된 기사의 연도별 변화 등을 정량 분석하였다. 기사 카테고리는 국제, 조국통일(남조선 관련), 사회(일반), 사회(건강·질병),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정신질환이 ‘건강·질병’ 카테고리에 활용된 사례와 비유적 의미로 활용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비유적 의미로 활용된 경우는 정신병, 정신분열, 치매 등의 용어를 활용하여 남조선, 미국, 일본, 적대적인 정치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정신질환 용어를 비유적으로 활용하여 비난한 대상 인물과 국가 단체 등에 관한 비유 보도 건수와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정신질환 중 ‘우울증’의 경우는 정량분석 및 내용분석 결과 시기에 따른 변화에 대한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및 워드클라우드 방법으로 시각화하여 보도 내용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기사 전문을 검토하던 중 정신질환이 정의 그대로 기사에 보도된 ‘건강·질병’ 분류의 기사 중 불연속성, 특수성 등 예외적 속성이 드러난 기사는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으로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실제 북한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의학에 관한 북한 사회의 인식 변화의 가능성이 드러난 것으로 연구자들이 판단한 경우였으며, 별도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 맥락과 함의 등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토론

1) 우울증: 자본주의사회 문제에서 ‘질병’으로의 변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김정은 집권기에 이르기까지 소위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이루어 왔다고 주장하여 왔다. 북한이 2021년에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이하 VNR)에서도 ‘자살률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므로 정신적, 육체적 폭력은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는다’라고¹⁸⁾ 하면서, 실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문제가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북한은 개인이 우울하여 일상생활 기능에 제한이 생긴다는 그런 질병 상태를 인정하기보다는, ‘우울증’ 자체를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현상인 것으로 여기며,¹⁹⁾ 북한 주민들은 우울증이 있을 경우,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여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정신과 진료실에서도 우울증의 진단 및 치료가 더디게 될

18)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pp.19~46(검색일: 2024년 11월 26일).

19) 유전원·전우택, “북한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정신의학 진단분류체계,” 22쪽; Seon-Cheol Park, Joonho Choi, Dong-Woo Lee and Yong Chon Park, “Psychiatric research in North Korea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76(2019), pp.96~97.

〈표 1〉 ‘우울증’이 『로동신문』 본문에 포함된 기사의 분류별 건수

대분류	국제			조국통일				건강·질병		사회 (일상생활)
소분류	미국 비판	일본 비판	기타 자본주의 사회 비판	남한 사회 비판	군대 비판	박근혜 비판	기타	국제 기사	국내 기사	
기사 건수	4	15	5	16	8	3	2	10	7	
소계	24			29				17		3
총합	73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에서 우울증이 언급된 기사를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시기 ‘우울증’은 총 73회 기사에서 언급되었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비판한 대상은 남한이었다. ‘남조선에서 마음의 독감으로 불리우는 **우울증**으로 신음하는 여성들’,²⁰⁾ ‘시험성적이 낮다고 하여 부모로부터 매를 맞아 피멍이 들고 학교에 가서는 교원들과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따돌림을 당하여 **우울증**과 불안감에 모대기며 지어 자살까지 하는 것이 바로 남조선의 불쌍한 어린이들’²¹⁾ 사회 전반의 우울증을 지적한 기사가 총 16건이었다. 이는 ‘남조선괴뢰정부의 폭정’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또 ‘괴뢰군살이가 너무도 가달파 사병들의 2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등 군대 내부 문제를 지적한 기사가 8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며 우울증을 언급한 기사 3건, 기타 탈북민의 우울증 1건,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우울증을 언급한 기사가 1건이었다. ‘국제’ 분류 기사로는 ‘자살의 동기나 원인을 보면 건강문제 즉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자가 가

20) “청와대안방주인이 짓뭇개버린 녀성인권,” 『로동신문』, 2016년 2월 24일.

21) “어머니들의 자부, 우리 제도가 제일,” 『로동신문』, 2014년 11월 6일.

장 많다는 것이다'(일본),²²⁾ '미국방성과 언론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군에는 자살자와 흉악범죄자, 약물사용자, 탈영자, 우울증환자들이 수도룩하다'(미국)²³⁾ 등의 내용으로 일본, 미국의 우울증을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이렇게 『로동신문』에서는 우울증이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자본주의사회의 문제로 규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가 개시될 시점부터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본주의사회 비판의 대상이 남한에서 일본으로 주요하게 변화되었다. 우울증을 소재로 일본을 비판한 기사는 전체 15건 중 13건이 문재인 정부 시기였다. 2018년 이후에는 우울증이라는 소재로 남한을 비판한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 남한 및 대외 국가에 대한 비판 논조의 기사는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그 강도와 빈도가 달라질 것이다.²⁴⁾ 로동신문의 '남조선 문제로 인한 우울증' 보도가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기사 현황의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전반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울증'이 본문에 포함된 기사의 시기별 변화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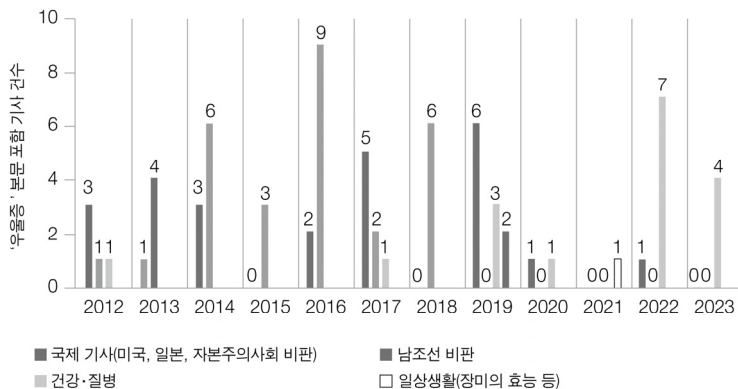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였다. 2017년 4월 6일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는 내용의 보도²⁵⁾는 우울증을 실제 의학적 질병으로 다루면

22) "일본사회의 난치병 자살병," 『로동신문』, 2012년 10월 11일.

23) "쇠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자살행위를 하지 말라," 『로동신문』, 2016년 4월 6일.

24)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4호(2010), 110~115쪽.

〈그림 1〉 ‘우울증’이 『로동신문』 본문에 포함된 기사의 연도에 따른 보도 현황 변화



서 건강·질병의 항목으로 중립적으로 기술된 기사로 볼 수 있다. 보도에서는 북한 주재 ‘세계보건기구대표’, ‘유엔상주조정자’ 등을 비롯한 대표부들이 참가하였다고 하였으며, 행사에서 정신건강관리와 우울증에 관한 자료가 발표되고 ‘문수기능회복원’ 참관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사회 비판의 맥락이 아닌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 처음으로 『로동신문』에 보도된 사례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우울증 관련 언급이 자본주의사회 비판의 맥락에서부터 ‘의학적 질병 및 예방의 대상’으로서 치료되어야 할 상태로 보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는 치료 방법에 관한 기사 또한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2019년에는 장미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우울증을 낮게 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머리아픔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가 2회 보도되었고,²⁵⁾ 새들의 지저귀음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기사가 1회

25)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로동신문』, 2017년 4월 76일.

보도되는 등,²⁷⁾ 처음으로 우울증의 예방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익한 운동으로 승마를 소개하며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보도 내용이 있었다.²⁸⁾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흥남제육공장에서 무력증 및 우울증상태개선작업을 하는 데마놀물약을 생산, 출품하였다는 기사가 있어서,²⁹⁾ 실제 북한의 인민 보건 영역에서도 우울증 치료에 의약품이 활용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2019년 “수자식 건강관리기술”이라는 기사가 특징적이었는데, ‘인공지능을 리용하여 조기진단의 정확도를 높일수있으며 치매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치료에 수자식치료방법을 활용할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여, 정신질환이 치료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³⁰⁾ 2022년 이후 『로동신문』 내용에 우울증이 포함된 12건의 기사는 1건(미국의 인권을 지적³¹⁾)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질병’으로 분류되는 기사였으며, 이 중 10건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 즉 코로나-19 감염증과 연관된 내용이었다. 자택격리 시 불안감과 우울증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2022년 5월 18일 기사³²⁾는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음을 인정한 시기(2022년 5월

26) “여러모로 좋은 장미,” 『로동신문』, 2019년 8월 4일, “장미와 인류의 생활,” 『로동신문』, 2019년 9월 18일.

27) “건강과 생활,” 『로동신문』, 2019년 10월 13일.

28) “유익한 운동,” 『로동신문』, 2020년 4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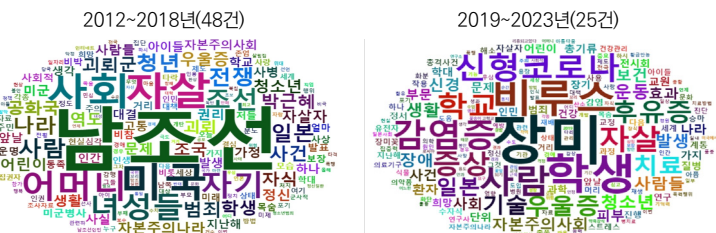
29)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우리의것을 더 많이 더 좋게,” 『로동신문』, 2019년 11월 30일.

30) “수자식건강관리기술,” 『로동신문』, 2019년 8월 14일.

31) “2012년 미국의 인권침해보고서,” 『로동신문』, 2022년 6월 14일.

32) “자택격리시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면,” 『로동신문』, 2019년 5월 18일.

〈그림 2〉 연도별 ‘우울증’ 용어가 사용된 『로동신문』 기사 본문의 워드클라우드



12일~7월 29일)의 기사였다.³³⁾ 이후 2023년에 이르기까지 감염증 후유증으로서 우울증,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기사,³⁴⁾ 또 자기공명단층촬영(남한의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 해당)을 통해 감염증을 앓고 난 이후 전두엽, 뇌간의 변화와 우울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³⁵⁾ 감염병 후유증의 유전자를 밝혔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감염 후유증으로서의 우울증 가능성을 언급했다.³⁶⁾ 비록 감염증이라는 신체질환의 후유증의 하나로 ‘우울증’이 주로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증에 의한 팬데믹 시기 이후 우울증이 질병 및 예방 관점에서 보도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증’이 본문에 사용된 기사 73건에 대해서는 2012~2018년의 시기와 2019~2023년의 시기로 나누어, 최다 빈출 단어를 통해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였으며 이는 〈그림 2〉와 같다.

- 33) 한하린·이대은, “북한의 코로나19 통제현황과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제5권 30호(2022), 3~6쪽.
- 34)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의 후유증치료안내서,” 『로동신문』, 2022년 7월 13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한 자료,” 『로동신문』, 2022년 11월 24일.
- 35)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과 관련한 자료,” 『로동신문』, 2022년 12월 24일.
- 36) “감염병후유증의 알려지지 않은 장후들,” 『로동신문』, 2023년 5월 9일.

2012~2018년 ‘우울증’이 본문에 사용된 기사의 최다 빈출 단어는 남
조선(127), 미국(73), 자살(71), 사회(69), 어머니(59), 자기(53), 여성들
(52), 조선(44), 사람(40), 전쟁(38)의 순이었으며, 2019~2023년에는 장
미(57), 학생(46), 비루스(42), 사람(36), 감염증(35), 신형코로나(33), 자
살(31), 학교(31), 증상(29), 후유증(27)의 순이었다. 특히 2019~2023년
주요하게 언급되었던 감염증(35), 증상(29), 후유증(27), 치료(25), 보건
(16) 등 ‘보건, 건강, 질병’과 관련된 단어들은 2012~2018년 사이의 기
사 본문에서는 각각 감염증 0회, 증상 2회, 후유증 3회, 치료 12회, 보
건 8회 등으로 언급되었다. 2019년 이후 기사에서 보건, 건강 관련 단
어의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에서의 이러한 ‘우울증’ 보도의 변화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먼저는 ‘정신건강’이라는 영역을 인민 보건이라는 국가적 과
업에 포함시키는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따라
VNR을 제출하였는데, ‘2030년까지 전반적무상치료제 및 예방의학의
질 향상을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3분의 1로 감소하
며 정신건강과 행복한 삶을 증진 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신
건강 또한 기술 내용에 포함하였다.³⁷⁾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는 비전
염성 질병의 맥락에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계속 강조하였으
며,³⁸⁾ 『로동신문』에서 질병 및 예방의 대상으로서의 ‘우울증’ 보도 내

3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51~52.

38) Rosanna Lyus·Carolyn Buamah·Allyson Pollock·Lisa Cosgrove and Petra
Brhlikova, “Global Burden of Disease 2017 estimates for Major Depressive

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체제 통제 방식에 대한 개념 변화도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과거에는 감시와 처벌 위주의 전체주의의 '부정적 사회통제'를 중시하였다면, 최근에는 동의, 보상, 법제를 통한 후기 전체주의의 '긍정적 사회통제'로 통제 방식을 바꾸면서,³⁹⁾ 정신질환에 대한 대응 역시 바뀌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인민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등의 정책 방향은 '긍정적 사회통제'라는 북한의 변화하는 체제 속성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우울증이라는 진단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며, 김정은 시대에 추진하였던 보건부문 발전 및 의료 부문 개선의 일환으로서⁴⁰⁾ 전 보건의료 영역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일 수 있다. '질병 및 예방의 대상으로서의 우울증' 보도의 증가는 정신 건강 증진 등을 포함한 북한의 보건 발전 및 의료 부문 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으며, 이는 일차적으로는 국제사회 규범과 표준을 수용하며 정상 국가의 일

Disorder: a critical appraisal of the epidemiological evidenc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Vol.14, No.9(2023), pp.1~2.

- 39)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2018), 45~77쪽.
- 40) 김정은은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보건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사회주의 보건사업의 지속 발전, 보건지표 개선 등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다. 보건 부문의 예산은 2017년 13.3%로 예산 지출계획 증가율이 상승하였으며, VNR에도 공공 부문 정부 지출 비중이 2014년 6.4%에서 2017년 7.0%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은미·박영자·이철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21), 48~49, 89~92쪽.

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⁴¹⁾

2) 정신병과 기타 정신질환

(1) 정신병: 적대국을 향한 비유적 표현

정신질환 ‘정신병’에 해당되는 조현병(국내에서는 2011년 정신분열병에 서부터 병명이 개정됨)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논의의 한가운데에 있는 질병이다.⁴²⁾ 환청, 망상, 현실 검증력 저하 등으로 대표되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은 시대와 사회를 넘어 존재하였다. 실제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보다 낮다는 보고⁴³⁾와 조현병의 정신병리가 폭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⁴⁴⁾ 정신병 환자는 언론에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곤 하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schizophrenia’라는 폄하의 뜻이 담긴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⁴⁵⁾ 북한

41) 위의 책, 87~92쪽.

42) 김성완·김선영·유준안·배경열·김재민·신일선·윤진상,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정신병에 대한 낙인 실태,” 『대한조현병학회지』, 제14권 1호(2011), 42~43쪽.

43) 최아름·김성은·백경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보건행정학회지』, 제29권 2호(2019), 106쪽.

44) 최준호·박선철, “조현병 환자에서의 폭력성의 관련요인,” 『대한조현병학회지』, 제18권 1호(2015), 10~14쪽.

45) Kenneth Duckworth, John Halpern, Russell Schutt and Christopher Gillespie, “Use of schizophrenia as a metaphor in US newspapers,” *Psychiatric Services*, Vol. 54(2003), pp.1402~1404; Omer Boke, Servet Aker, Arzu Aker, Gokhan Sarisoy and Ahmet Sahin, “Schizophrenia in Turkish newspapers: retrospective scanning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2(2007), pp.457~461.

〈표 2〉 ‘정신병’, ‘정신분열’ 등이 『로동신문』 본문에 포함된 기사의 분류별 건수

대분류	국제				조국통일			사회 (건강· 질병)
	미국 비판	일본 비판	이스라 엘 비판	기타 자본주 의사회 비판	남한 비판	코로나 -19 소식	기타 사건 보도	
정신병	143	12	2		196	1	2	1
정신분열	3	2		1	7			1
정신병 및 정신분열 동시 표기	1	1			1			
전체 기사 수	147	15	2	1	205	1	2	2

주: 정신병은 정신병자, 정신병원, 정신병동을 포함한다.

에서는 남한의 개정 이전 명칭인 ‘정신분열병’에 해당하는 ‘정신분열’이 조현병(Schizophrenia)의 공식 용어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정신분열’과 더불어 ‘정신병’, 그리고 정신병의 연관단어인 정신병자, 정신병원, 정신병동 등의 용어를 『로동신문』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로동신문』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적대 국가 또는 적대국(또는 남한)의 정치인을 향해 ‘정신병’, ‘정신분열’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전체 375건 중 98.6%인 370건이 해당하였다. 남한을 대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등 집권자에 대한 비난이 특징적이었으며 다음 기사가 그 예이다.

평양326전선공장의 청년들은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는 미친개, 정신병자들을 몽땅 칼탕쳐죽이자.>, <리명박역적과 김관진, 정승조를 비롯

〈표 3〉 정신병, 정신병자, 정신병원, 정신병동, 정신분열 등의 용어가
『로동신문』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된 기사와 비유를 통한 비난 대상자

인물이 '정신병자' 비유로 로동신문에 언급된 횟수												
이름	트럼프	박근혜	리명박	홍준표	오바마	황교안	케리 ¹⁾	아베	기타 1회 '정신병자' 비유로 언급된 인물			
횟수	117	53	47	6	4	2	2	2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김무성, 반기문, 헤일리 미 UN대사, 부시 미 전 대통령, 송영무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총합	238											
국가 및 단체가 '정신병자' 비유로 로동신문에 언급된 횟수												
국가	남조선								미국		일본	
세부	남조선 당국	보수 야당	남조선 사회	보수 단체	민주당	대한 애국당	보수 언론	보수 패당	미국 당국	미군	일본 당국	일본 언론
횟수	33	7	3	3	1	1	1	1	11	2	8	2
총합	50								13		10	
	73											

주: 1) 미국의 68대 국무장관.

한 인간쓰레기들을 모조리 민족의 심판대우에 세우자.》고 웨치며 역적 패당들과의 결산을 다짐하였다.⁴⁶⁾

박근혜는 그 누구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으로부터 떠받들리고 보살핌을 받기 위해 태어난 진귀한 《공주》로 자신을 착각하고있는 정신병자이다⁴⁷⁾(강조는 저자).

46) “깡패무리를 때려잡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자,” 『로동신문』, 2012년 3월 4일.

47) “죄악과 오욕의 대명사: 박근혜를 녀성의 이름으로 해부한다,” 『로동신문』, 2016년 3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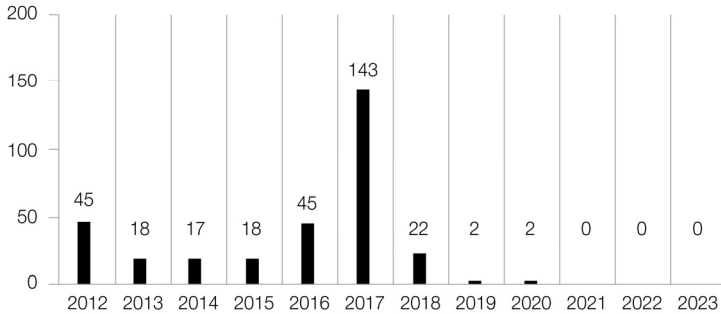
특히 ‘정신병’, ‘정신분열’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 375건 중 312건이 비유로 사용되었으며, 남한과 적대국(미국, 일본) 및 대적 정치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정신병자들의 발광질’, ‘정신병자의 히스테리’, ‘남조선은 거대한 정신병원’, ‘정신병자처럼 날뛰다’, ‘박근혜의 대결정신병증세’ 등 원색적인 용어가 활용되었다. 정신병, 정신분열 등의 용어를 비유 목적으로 사용한 기사의 건수는 <표 3>과 같다.

가장 많이 ‘정신병자’ 비유로 비난을 받은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정신병자뿐만 아니라 미치광이, 불량배, 깡패두목, 무기장사군, 치매증세, 늑다리미친개 등의 용어 또한 같이 활용되었다. ‘정신병자’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트럼프를 실명으로 비난한 표현이 담긴 116건의 기사는 모두 2017년 5월 26일부터 2018년 2월 20일 사이에 보도되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된 2018년 3월 8일 이후에는⁴⁸⁾ 트럼프에 대한 ‘정신병자’ 비난 표현은 사라졌다. 이와 함께 비유의 의미로 정신병 관련 용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사회문제로 인해 ‘실제 정신질환으로서의 정신병’이 남조선, 미국, 일본 등에서 만연하다는 내용(예: ‘남조선 각계는 괴뢰군이 통채로 정신병진단을 받았다고 개탄을 금치 못하고있다’⁴⁹⁾)의 기사는 58건 확인되었다. 반면 5건의 기사에서는 중립적으로 ‘정신병’, ‘정신분열병’의 용어가 활용되었는데, 남조선의 불법입국자가 남쪽에서 자기를 정신병자로 치부하여 입국했지만 돌려보냈다는 보도,⁵⁰⁾ 신형코로나비루스의 후보약물 중 정신분

48) 진달래, “불탄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아닌 정의용이 먼저 제안”, 『한국일보』, 2020년 6월 22일.

49) “거대한 정신병원”, 『로동신문』, 2016년 10월 11일.

〈그림 3〉 『로동신문』에서 ‘정신병’, ‘정신분열’ 등이
비유 목적으로 본문에 활용된 기사의 연도별 보도 건수



열병치료약물이 있다는 내용,⁵¹⁾ 남조선의 정신병동에서 집단적 발열 증상이 있었다는 보도⁵²⁾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건강·질병으로 분류된 1건의 기사도 실제 정신병, 정신분열병 등의 질병을 신문에서 다른 내용은 아니었으며, 소음으로 인해 정신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신병 용어가 언급되었다. 이렇게 『로동신문』에서는 ‘정신병’, ‘정신분열’ 용어가 실제 의학적 의미로 언급된 일은 거의 없었고, 비유로서, 또 적대 세력 비판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동신문』의 위상과 일원화된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일상에서는 ‘정신병’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고 호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 기간의 ‘정신병’ 비유 표현의 변화를

50)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통지문을 보내었다,” 『로동신문』, 2014년 12월 25일.

51) “신형코로나비루스전차방지를 위한 연구정형과 치료방안(1),” 『로동신문』, 2020년 2월 18일.

52) “청도대남병원에서 집단적발열증상이 나타난것으로 확인,” 『로동신문』, 2020년 2월 23일.

나타낸 <그림 3>을 통해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8월 21일 기사에서 남한의 보수단체 엄마부대를 향해 ‘늑다리 정신병자’라고 표현한 이후⁵³⁾에는 기자 명의로 ‘정신병’ 관련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한 기사는 없었다. 2020년 6월 18일 ‘재중동포’ 명의로 정신병자라는 비유로 탈북민 문제에 대해 남조선 당국을 비난한 기사(이런 배은망덕한 삽살개무리들이 오물통에서 짚어대다 못해 분계연선에 까지 쓸어나와 지랄발광을 하도록 내버려둔 남조선당국자들도 똑같은 정신병자가 아닐수 없다고 단죄)⁵⁴⁾를 마지막으로 ‘정신병자’의 비유 표현은 중단되었다. 이후 발간된 ‘정신병’ 용어가 활용된 5건의 기사는 △ 미국으로 이주한 자메이카 여성이 정신병이 걸린 사례를 통한 미국 사회 비판, △ 미국 사회 총기 문제로 인한 어린이의 정신병 발병 문제, △ 총기 범죄자가 ‘정신병자’로 신고된 사례, △ 과거 일제 강점기 일본 전쟁 범죄자가 정신병에 걸린 사례, △ 소음이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강·질병 기사 등이었다. 2021년에서 2023년의 시기 『로동신문』에는 정신병이 비유적 의미로 활용된 내용이 보도된 기사는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에서의 정신병 등 정신질환에 관한 인식 변화를 일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8년 12월 유엔에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던 바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기준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더라도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는 큰 변화라는 평가가 있다.⁵⁵⁾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은

53) “대세에 역행하는 극악한 친일망동,” 『로동신문』, 2019년 8월 21일.

54) “인간추물들을 죽탕쳐버리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적극 합류,” 『로동신문』, 2020년 6월 18일.

55) 송인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법학연구』, 제29권 1호(2019),

‘불구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으로 대체되었고 그 외 경멸적인 용어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하였던 바 있다. 장애인 인권 개선의 움직임과 발맞추어, 더 이상 정신병 및 정신장애 관련 용어가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공식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해당 보고서에는 정신질환자 치료법 개선과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서비스기관의 의료 및 환경개선 규정’을 내각이 공포하고 결정,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치료와 관련한 지침, 매뉴얼이 제작 및 배포되며 조기 진단 및 치료 개입을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⁵⁶⁾ ‘정신건강’의 증진 또한 보건성과 각 이행기관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사례이며, ‘정신병’에 대한 인식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종합하면 『로동신문』 속 변화는 과거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이를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타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용어의 『로동신문』에서의 활용

‘정신질환’이라는 용어가 본문에 사용된 『로동신문』 기사는 총 23건이었다. 정신질환의 경우는 ‘정신병’, ‘정신분열’과 같이 적대 대상 비

143~144쪽.

56)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비공식 번역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이행보고서,” 159~161쪽,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NKHRCenter/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11&mode=view&searchCondition=&searchKeyword=&cntId=53928&category=&pageIdx=5 (검색일: 2024년 11월 26일).

난을 위해 비유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없었지만, 17건의 국제 기사 중 16건이 자본주의사회 비판의 목적(예: ‘마약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업과 리혼,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육체적고통을 겪던 끝에 마약을 과잉 사용하였다’⁵⁷⁾)으로, 6건의 조국통일 분류 기사 중 3건이 남조선 비판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2018~2020년 사이에는 ‘정신질환자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 감염’ 보도가 2건 확인되었다. 치매가 본문에 사용된 『로동신문』 기사는 총 25건이었는데, 박근혜, 트럼프 등 대적 정치인을 비난하기 위한 비유 목적으로 사용된 기사 10건을 비롯하여 총 16건이 남한, 미국 등에 대한 비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2015년에 보도된 “뇌수질병과 뇌기능강화제”,⁵⁸⁾ 또 2015년과 2018년 2회 보도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기념토론회 진행”⁵⁹⁾ 등 건강·질병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사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었다(전체 25건 중 6건이 건강·질병 항목). 2023년 11월의 “치매증을 초래하는 일상습관 몇가지” 기사는 전형적인 건강·질병 항목의 보도로서,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교정을 설명하였으며,⁶⁰⁾ 북한 사회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외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는 총 4회 모두 미국 비난의 목적으로, ‘불안증’이라는 용어는 2회 모두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핵불안증’을 갖고 있다는 비유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57) “마약에 중독되어 비틀거리는 <문명사회>,” 『로동신문』, 2018년 9월 1일.

58) “뇌수질병과 뇌기능강화제,” 『로동신문』, 2015년 8월 9일.

59)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기념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5년 9월 22일,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월간 기념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8년 9월 13일.

60) “치매증을 초래하는 일상습관 몇가지,” 『로동신문』, 2023년 11월 13일.

3) 정신건강 관련 기사 내용분석

본 장에서는 『로동신문』에서 특정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 등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정신질환이 실제 북한 사회의 현실적인 정신건강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북한 사회의 정신질환 관련 인식 변화의 가능성이 드러난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1) 스트레스 예방, ‘정신의학자’가 집필한 기사의 사례

『로동신문』에서 건강·질병 기사로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다룬 기사는 평양의학대학 박사 최혜영 명의로 보도된 2015년 11월과 2023년 9월의 기사를 꼽을 수 있다.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심신질병으로서는 스트레스관련성 위 및 십이지장궤양, 신경성위염, 신경성식욕부진 및 항진증, 허혈성심장병, 기관지천식, 식물신경실조증 그리고 갱년기장애 등을 들 수 있다. … (중략) … 스트레스관련성질환의 요인은 스트레스 그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개별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적응상태의 차이에 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관련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심리상담과 행동요법, 암시요법을 비롯한 심리치료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⁶¹⁾

각종 질병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던 지난 시기와는 달리 사회가 발전하고 정신로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 정신적 스트레스와 잘못된

61) “스트레스관련성질환과 그 예방,” 『로동신문』, 2015년 11월 15일.

생활방식, 습관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였음. …
(중략) … 또한 보건기관들에 찾아가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⁶²⁾

2015년에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심리치료
(심리상담, 행동요법, 암시요법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2023년 기
사에서는 보건기관에서 심리상태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크게는 생물학적치료와 심리사회적치료로 구
성할 수 있으며,⁶³⁾ 북한의 정신의학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탈북
의사들이 북한에서 심리사회적치료(정신치료)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기술하였던 바 있다.⁶⁴⁾ 본 기사에서는 스트레스 관련 질환에
서 평양의학대학 교수의 명의로 특정한 정신치료 개입을 권고하고 있
어서, 실제 북한의 임상에서 정신의학적 치료의 제공 범위와 방향 등
의 현황을 앞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최혜영은 선행연
구에서도 북한 정신건강 영역의 주요 연구자로 꼽히는 인물로⁶⁵⁾ 이번
『로동신문』에서도 정신건강과 관련한 일종의 ‘건강 칼럼’에 필진으로
참여하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아직은 『로동신문』에서 정신의학 관련
보도나 전문가 집필 등이 드문 상황이지만, 정신의학 관련 전문가가

62) “심리건강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3년 9월 3일.

6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3판』, 789쪽.

64) 김석주·박영수·이혜원·박상민,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
황,” 36쪽.

65) 유시은, “최근 북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연구에 대한 탐색적 고찰,”
『미래연구』, 제10권 1호(2019), 35~36쪽.

『로동신문』 집필에 참여하는지를 관찰하며 ‘인민보건’ 장려를 위한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감염병에 대응하는 북한의 ‘심리방역’ 관련 보도

북한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활동에 『로동신문』을 적극 활용하였다. 2020년 1월 26일 이후 사실상 매일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주민의 참여와 방역 당국의 차단, 통제를 독려하였다.⁶⁶⁾ 감염병 대응 초기인 2020년 3월에 보도된 “전염병을 대하는 심리적 반응과 심리조절방법” 기사는 당시 남한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던 ‘심리방역’ 방법을 보도하였다.⁶⁷⁾ 기사에서는 “안전부절하며 계속 생각하고 인체의 각종 변화를 특별히 관심하며 몸이 불편한 것을 신형코로나비루스와 연관시키고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병이 날가봐 승강기단추와 문손잡이를 감히 다치지 못한다든가 밖에 나가지 않으며 병원에는 더욱 갈 용기를 못낸다. 누구나 다 비루스를 가지고있는것같은 생각을 한다” 등이 전염병 발생 이후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적 반응으로 설명하였다. 보도에서는 심리조절 방법으로는 ‘호흡법(숨을 들이쉬고 멈추었다가 5초 동안 속셈하면서 고드름게 내쉬기), 근육풀어주기, 나비채(눈을 감거나 절반쯤 감고 두손으로 머리 뒤로 가져가서 두 손으로 교차적으로 어깨를 친다),

66) 이승열, “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 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4호(2021), 135~136쪽.

6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코로나 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https://www.knpa.or.kr/content/community/post_view.php?bt=6&post_id=62943&page=20 (검색일: 2024년 11월 26일).

금고기술(마음속에 축적된 부정적정서를 금고에 보관해둔다)’ 등을 소개하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안정화기법’ 중의 일부이며 남한에서는 각각 복식호흡, 근육이완, 나비포옹법, 봉인연습 등의 이름으로 교육되는 방법이다.⁶⁸⁾ 본 연구는 『로동신문』 우울증 변화 보도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증을 질병 맥락에서 다루기 시작한 보도가 증가하였던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 ‘전염병 대응 심리조절방법’ 보도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접근이 다각화되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며 정신건강에 대한 증가된 관심을 보여 주는 기사로 볼 수 있겠다.

(3) ‘전자오락중독’ 보도의 배경

2018년 10월 『로동신문』에는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전자오락중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오락중독을 정신 및 행위장애의 장에 포함시켰다고 하였으며, 전자오락중독이 인간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따라 이를 정신질환으로 선포하였다고 전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전자오락을 하면 머리섬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지능을 개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자오락을 생활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것은 심각한 전자오락중독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⁶⁹⁾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이는 아래 인용하였다.

온종일 오락을 할 생각만 하고있으며 조금이라도 오락을 하지 못하면 참

68)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프로그램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프로그램 매뉴얼』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69)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전자오락중독,” 『로동신문』, 2018년 10월 12일.

기 어려워하고있다. 지어 기분이 저락되어 아무 일도 못하고있다. 여러 번 그만두려고 결심하였다가도 얼마 못가서 다시 오락의 세계에 빠져들고있다. 전자오락중독은 청소년의 학습과 생활에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 (중략) ...

전문가들은 전자오락중독이 정신질환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때에 받는 동시에 약물치료를 배합하면 능히 완치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자오락중독을 정신질환으로 선포한데 따라 앞으로 가정들에서는 환자를 병원에 보내여 전문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⁷⁰⁾

본 기사는 북한의 『로동신문』에서 유일하게 ‘행위중독’ 다룬 기사이다.⁷¹⁾ 본문에 언급된 ‘전자오락중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정한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진단명으로 등재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⁷²⁾의 북한 표기이다. 이는 국내에서나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에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적응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아직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지는 않았다.⁷³⁾ 기사에서는 ‘전자오

70) 위의 글, 2018년 10월 12일.

71) 행위중독은 ‘비물질장애’라고도 하며, 물질 섭취를 하지 않지만 물질 관련 장애와 유사한 행동 상태를 보이는 질병을 말하며, 현재까지는 행위중독 중에는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만 공식 진단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민성길·김찬형, 『최신정신의학 제7판』(서울: 일조각, 2023), 524쪽.

72) Nazia Darvesh, Amruta Radhakrishnan, Chantelle Lachance, Vera Nincic, Jane Sharpe, Marco Ghassemi, Sharon Straus and Andrea Tricco, “Exploring the prevalence of gamingdisorder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a rapid scoping review,” *Systematic Reviews*, Vol.9, No.68(2020), p.2.

73)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제3판)(서울: 학지사, 2024), 570~571쪽.

락중독'의 증상과 심각성, 치료 필요성과 중국의 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북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金正은 시대의 사회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천명하며 이동통신의 보급, 디지털기기 보유 증가 등을 통해 디지털 여가문화가 확대되었다.⁷⁴⁾ 높은 휴대전화 보유율, 컴퓨터 이용률 등을 통해 북한의 청년세대는 디지털 접근성과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며, 이 또한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⁷⁵⁾ 『로동신문』의 본 보도는 디지털문화 확산이라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가운데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관점을 담았을 수 있다. 약간 맥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더 나아가 2020년 12월 통과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맥락에서의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한 당국의 지침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⁷⁶⁾ 해당 법령은 남한 또는 적대국(미국, 일본) 등의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 등을 시청, 보관, 유입, 유포하는 데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북한이 다른 중독들에 대한 언급과 대응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온 가운데, 유독 '전자오락중독'만을 지목하고 다루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알콜중독', '알콜람용' 등의 중독질환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사회의 주요 특징으로 보고 있고 자

74) 최선경, “북한 디지털 여가의 혼종성: 게임의 생산, 유통, 이용,”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3권 3호(2023), 206~214쪽.

75) 위의 글, 207~210쪽.

76) 한명섭,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북한법 연구』, 제27권 (2022), pp.116~121.

국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유지하였다.⁷⁷⁾ 『로동신문』 기사 중 제목에 ‘알콜람용’이 포함된 기사 8건, ‘알콜중독’이 포함된 1건의 기사 모두 국제면에 해당하는 6면에 보도하는 등⁷⁸⁾ 알코올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를 내부 문제 형태로 보도한 사례는 없었다. 마약 문제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전자오락중독’의 질병 등재를 ‘치료와 예방’을 강조하는 논조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특정 정신질환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단순히 의학적 근거에 의한 판단을 넘어 정치사회적 판단에 따라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소련에서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완만진행형 조현병(Sluggish schizphrenia)으로 진단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들이 있었으며,⁷⁹⁾ 독일 나치 정권 시기 정신과 의사들이 우생학 이론에 동의하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안락사와 강제적 불임 등에 협력한 사례들이 있었는데,⁸⁰⁾ 이것은 정신의학이 정치체제의 도구로 활용된 사례들이다. 북한에서는 소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처럼 반체제인사를 조현병 환자로 규정하여 입원한 사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⁸¹⁾⁸²⁾ 그

77) 유전원·전우택, “북한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정신의학 진단분류체계,” 19쪽.

78)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https://unibook.unikorea.go.kr/material/list?materialScope=TOT&format=&pageSize=10&sortField=publishYear&sortDirection=DESCENDING&method=KEYWORD&fields=ALL&keywords=%EC%95%8C%EC%BD%9C%EC%A4%91%EB%8F%85>(검색일: 2024년 11월 26일).

79) J. K. Wing, “Psychiatry in the Soviet Union,” *British Medical Journal*, Vol.1 (1974), pp.435~436.

80) Rael Strous, “Psychiatry during the Nazi era: ethical lessons for the modern professional,”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Vol.6, No.8(2007), pp.1~5.

81) 김석주·박영수·이혜원·박상민,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 37쪽.

러나 그동안 북한 내부의 물질 중독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던 중에, 아직 국제적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지 않은 ‘전자오락중독’이라는 행위중독만을 『로동신문』에서 질병이라고 다루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오락중독’은 일차적으로는 기기의 기원(적대국에서 왔는지)에 따라, 또 관점에 따라(임상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북한 내에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치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로동신문』에서 해당 용어에 대한 논조의 변화를 살핀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향후 다른 정신의학의 진단명이 정치사회적 환경과 목적에 따라 이전과 다르게 활용되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이 또한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로동신문』의 정신질환 관련 용어 사용의 예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정신질환에 관한 인식 및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울증은 남한,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사회의 문제라고 보던 전통적인 관점에서 2019년부터는 우울증의 예방, 치료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고 코로나-19시기 감염병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제시되는 등 ‘의학적 질병 및 예방’의 대상이라는 관점으로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신병’과 ‘정신분열’이라는 용어는 주로 적

82) Young Su Park, Sang Min Park, Jin Yong Jun and Seog Ju Kim, “Psychiatry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Psychiatry,” pp.367~368.

대국과 그 지도자들을 향한 비난과 비하를 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활용되었으나 2021부터 2023년까지의 시기에는 그런 비유적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로동신문』에는 정신의학자의 ‘건강 칼럼’ 형식의 기사와 코로나-19시기 ‘심리조절’을 강조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의학적 차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증가된 관심이 반영되었다. 과거 중독질환은 자본주의사회 문제로 간주하면서 북한 내에는 없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오락중독’의 심각성과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사가 나오는 변화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키워드의 변화는 정신건강 또한 인민 보건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변화임과 동시에 인민 생활과 복지향상이라는 긍정적 사회통제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으로, ‘정신병’, ‘정신분열’ 쓰임새의 변화에는 장애인 차별의 중단과 인권 개선이라는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으로도 고려하여 보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이 정신질환을 자본주의 사회모순으로 발생한 현상, 사회주의형 인간으로 충분히 개조되지 못하여 나타난 부정적인 정치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편견을 가지던 것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현상으로 보고 다루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전 세계에서 우울증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없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⁸³⁾ 지상낙원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북한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 상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

83)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우울증 제3판』(파주: 군자출판사, 2023), 20~37쪽.

록 북한 당국이 노력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분열병’이라는 질병은 아직 한 차례도 『로동신문』에 하나의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질병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 사회가 극복해야 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편견의 벽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구소련이나 나치에서 있었던, 정치권력의 사회통제 도구로서의 정신의학 이용 사례는, 여전히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의식하게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북한 당국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간문헌 분석만으로 진행하였기에 실제 북한 주민(정신질환 또는 비정신질환자, 의료진)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 인식의 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 있음에도, 북한 정치사회적 특성에 의하여 그것들을 부정적인 의심의 틀에서 보려는 시각의 제한도 있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향후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질환에 대한 대응의 변화, 그에 대한 『로동신문』의 기사 변화 등을 추적함으로써 확인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연구는 북한의 주요 매체인 『로동신문』의 분석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인식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북한의 정신의학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투고: 2024.11.29. / 수정: 2025.04.01. / 채택: 2025.04.07.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신문

- “감염병후유증의 알려지지 않은 징후들,” 『로동신문』, 2023년 5월 9일.
- “거대한 정신병원,” 『로동신문』, 2016년 10월 11일.
- “건강과 생활,” 『로동신문』, 2019년 10월 13일.
- “깡패무리를 때려잡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자,” 『로동신문』, 2012년 3월 4일.
- “뇌수질병과 뇌기능강화제,” 『로동신문』, 2015년 8월 9일.
- “대세에 역행하는 극악한 친일망동,” 『로동신문』, 2019년 8월 21일.
- “마약에 중독되어 비틀거리는 《문명사회》,” 『로동신문』, 2018년 9월 1일.
- “씻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자살행위를 하지 말라,” 『로동신문』, 2016년 4월 6일.
-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기념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5년 9월 22일.
-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월간 기념토론회 진행,” 『로동신문』, 2018년 9월 13일.
- “세계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로동신문』, 2017년 4월 76일.
- “수자식건강관리기술,” 『로동신문』, 2019년 8월 14일.
- “스트레스관련성질병과 그 예방,” 『로동신문』, 2015년 11월 15일.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한 자료,” 『로동신문』, 2022년 11월 24일.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한 자료,” 『로동신문』, 2022년 12월 24일.
-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후유증치료안내서,” 『로동신문』, 2022년 7월 13일,
- “신형코로나바이러스전차방지를 위한 연구정형과 치료방안(1),” 『로동신문』, 2020년 2월 18일.
- “심리건강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3년 9월 3일.
- “어머니들의 자부, 우리 제도가 제일,” 『로동신문』, 2014년 11월 6일.
- “여러모로 좋은 장미,” 『로동신문』, 2019년 8월 4일.
-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통지문을 보내었다,” 『로동신문』, 2014년 12월 25일.
- “유익한 운동,” 『로동신문』, 2020년 4월 5일.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전자오락중독,” 『로동신문』, 2018년 10월 12일.

“인간추물들을 죽탕쳐버리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적극 합류,” 『로동신문』, 2020년 6월 18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우리의것을 더 많이 더 좋게,” 『로동신문』, 2019년 11월 30일.

“일본사회의 난치병 자살병,” 『로동신문』, 2012년 10월 11일.

“자태격리시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면,” 『로동신문』, 2019년 5월 18일.

“장미와 인류의 생활,” 『로동신문』, 2019년 9월 18일.

“죄악과 오욕의 대명사: 박근혜를 녀성의 이름으로 해부한다,” 『로동신문』, 2016년 3월 4일.

“청도대남병원에서 집단적발열증상이 나타난것으로 확인,” 『로동신문』, 2020년 2월 23일.

“청와대안방주인이 짓몽개버린 녀성인권,” 『로동신문』, 2016년 2월 24일.

“치매증을 초래하는 일상습관 몇가지,” 『로동신문』, 2023년 11월 13일.

“2012년 미국의 인권침해보고서,” 『로동신문』, 2022년 6월 14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프로그램 매뉴얼』(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3판』(서울: 학지사, 202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제3판』(서울: 아이엠이즈컴퍼니, 2017).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우울증 제3판』(파주: 군자출판사, 2023).

민성길·김찬형, 『최신정신의학 제7판』(서울: 일조각, 2023).

전우택·김신곤 편저,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 제2판』(서울: 박영사, 2021).

정은미·박영자·이철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21).

2) 논문

- 김석주·박영수·이혜원·박상민, “북한 의사들이 바라보는 북한의 정신의학 현황,” 『정신신체의학』, 제20권 1호(2012), 32~39쪽.
- 김성완·김선영·유준안·배경열·김재민·신일산·윤진상, “주요 일간지에 나타난 정신병에 대한 낙인 실태,” 『대한조현병학회지』, 제14권 1호(2011), 41~49쪽.
- 김영주, “『로동신문』에 나타난 대남보도 논조 분석: 2008년 이후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4호(2010), 110~115쪽.
-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전체주의에서 후기전체주의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2018), 43~83쪽.
- 김지니, “김정은 시대, 통치공간의 형성과 그 전략들: 수령제 국가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혼종화,” 『현대북한연구』, 제26권 1호(2023), 8~44쪽.
- 박종익, 전미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신경정신의학』, 제55권 4호(2015), 299~309쪽.
- 박지연,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 당국의 인권 담론 연구: 담론 변화에 대한 검토와 실천적 변화에 대한 기대,” 『담론201』, 제22권 3호(2019), 115~152쪽.
- 송민경, “노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산림정책 분석: 1990년부터 2011년까지”(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송인호,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제와 실태,” 『법학연구』, 제29권 1호(2019), 123~152쪽.
- 송현진, “북한 장애인의 삶에 드러난 사회적 인식과 차별,” 『통일과 평화』, 제13집 2호(2021), 323~373쪽.
- 신호철, “김정은 시대의 북한 정신의학 연구: 북한 의학 학술지 <내과>와 <소아, 산부인과>를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유시은, “최근 북한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정신건강 연구에 대한 탐색적 고찰,” 『미래연구』, 제10권 1호(2019), 35~36쪽.
- 유전원, 전우택, “북한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정신의학 진단분류체계,” 『신경정신의학』, 제63권 1호(2024), 7~31쪽.
- 이승열, “북한의 ‘코로나(COVID)-19’ 대응 실태 분석: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1권 4호(2021), 135~136쪽.

장하용·박경우,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의 여성: 국가건설기부터 수령제 성립기까지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2005), 383~416쪽.

최선경, “북한 디지털 여가의 혼종성: 게임의 생산, 유통, 이용,”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3권 3호(2023), 205~230쪽.

최아름·김정은·백경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보건행정학회지』, 제29권 2호(2019), 105~111쪽.

최준호·박선철, “조현병 환자에서의 폭력성의 관련요인,” 『대한조현병학회지』, 제18권 1호(2015), 10~15쪽.

한명섭,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북한법 연구』, 제27권(2022), 115~156쪽.

3) 신문

진달래, “불탄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아닌 정의용이 먼저 제안,’” 『한국일보』, 2020년 6월 22일.

4) 기타 자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코로나 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건강지침,” https://www.knpa.or.kr/content/community/post_view.php?bt=6&post_id=62943&page=20(검색일: 2024년 11월 26일).

젤위거, 카타리나(Katharina Zellweger), “변화하는 북한 속에 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Shorenstein APARC 연구 보고서, 쇼렌쉬타인 아시아 태평양 연구센터,” 고미애 옮김(2011).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https://unibook.unikorea.go.kr/material/list?materialScope=TOT&format=&pageSize=10&sortField=publishYear&sortDirection=DESCENDING&method=KEYWORD&fields=ALL&keywords=%EC%95%8C%EC%BD%9C%EC%A4%91%EB%8F%85>(검색일: 2024년 11월 26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비공식 번역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이행보고서,”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

nkhr/NKHRCenter/archive/?b.

한하린·이대은, “북한의 코로나19 통제현황과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제5권 30호(2022), 1~17쪽.

3. 국외 자료

1) 논문

Ahn, Ji Hoon·Won Hyoun Kim·Hye Jin Choi·Jin Yong Jeon·In Gyu Song and Jae Nam Bae, “Stigma of Mental Illnesses as Perceived by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Vol.12, No.1(2015), pp.9~15.

Boke, Omer·Servet Aker·Arzu Aker·Gokhan Sarisoy and Ahmet Sahin, “Schizophrenia in Turkish newspapers: retrospective scanning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42(2007), pp.457~461.

Darvesh, Nazia·Amruta Radhakrishnan·Chantelle Lachance·Vera Nincic·Jane Sharpe·Marco Ghassemi·Sharon Straus and Andrea Tricco, “Exploring the prevalence of gaming disorder and Internet gaming disorder: a rapid scoping review,” *Systematic Reviews*, Vol.9, No.68(2020), pp.1~10.

Duckworth, Kenneth·John Halpern·Russell Schutt and Christopher Gillespie, “Use of schizophrenia as a metaphor in US newspapers,” *Psychiatric Services*, Vol.54(2003), pp.1402~1404.

Kim, Hae Won and Woo Taek Jeon, “Research output on mental health problems in North Korea between 2006 and 2017: A bibliographic analysis of North Korean medical journal articles,” *Asian Journal of Psychiatry*, Vol.53(2020), pp.1~7.

Lys, Rosanna·Carolyn Buamah·Allyson Pollock·Lisa Cosgrove and Petra Brhlikova, “Global Burden of Disease 2017 estimates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a critical appraisal of the epidemiological

- evidence,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Vol.14(2023), No.9, pp.1~18.
- Park, Seon-Cheol·Joonho Choi·Dong-Woo Lee and Yong Chon Park, "Psychiatric research in North Korea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76(2019), pp.96~97.
- Park, Young Su·Sang Min Park·Jin Yong Jun and Seog Ju Kim, "Psychiatry in Former Socialist Countrie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Psychiatry," *Psychiatry Investigation*, Vol.11, No.4(2014), pp.363~370.
- Strous, Rael, "Psychiatry during the Nazi era: ethical lessons for the modern professional,"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Vol.6, No.8(2007), pp.1~6.
- Wing, J. K., "Psychiatry in the Soviet Union," *British Medical Journal*, Vol.1 (1974), pp.435~436.

2) 기타 자료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검색일: 2024년 11월 26일).

North Korea's Use of Terminology Related to Mental Illness

Focusing on *Rodong Sinmun* during the Kim Jong-un Era

Yu, Jeon Won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Jeon, Woo Taek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I analyze the use of mental illness terminology, such as depression, psychosis, and schizophrenia, in articles from *Rodong Sinmun* published between January 1, 2012 and December 31, 2023. I also examine social perceptions and changes regarding mental illness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North Korea, depression has historically been characterized as a problem associated with capitalism and used as a disparaging term. However, since 2019,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rend in reporting depression as a medical condition and a focus for prevention efforts. The terms “psychosis” and “schizophrenia” have primarily been used to condemn and disparage the hostile country or its leaders; notably, such metaphors have not been used since 2021. North Korea's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viewed as a negative social phenomenon reflecting capitalist issues, appears to have gradually

shifted—at least in part—toward recognizing mental illness as a biological and medical concern.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ongoing monitoring of how mental illness terminology evolves in response to political and social contexts, and calls for sustained international attention and response.

Keywords: mental illness, depression, schizophrenia, psychosis, psychiatry, gaming disorder, social control